

# GS, 대우조선해양 인수인지 확고

## 최고경영자전략회의에서 산업의 문화화 강조 ...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뛰어든 GS그룹이 허창수 회장 등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최고경영자전략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계에 따르면, GS그룹은 8월 29-30일 청평 소재 GS칼텍스연구소에서 허창수 회장을 포함해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계열사 CEO들과 주요 사업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S 최고경영자전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GS그룹 최고임원들은 <산업의 문화화>라는 주제 아래 문화적인 변신에 성공한 서구와 일본기업들이 어떻게 문화를 기업 성과와 접목해 왔는지를 연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문화를 통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허창수 회장은 그룹의 사활을 걸고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전과 관련해 “2005년 3월 그룹 출범 직후부터 그룹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반드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객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은 변함없는 소명으로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의 문화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와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객들은 날로 세련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한 고객만족을 넘어서 잠재된 고객의 니즈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소비자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지만, 단순한 트렌드나 스타일을 넘어서 종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포맷과 콘텐츠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문화의 산업화는 미디어나 인터넷산업 등이 발전해 온 과정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지만 산업의 문화화는 시대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에 어려운 분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GS와 고객들간의 문화적인 교감과 소통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01>